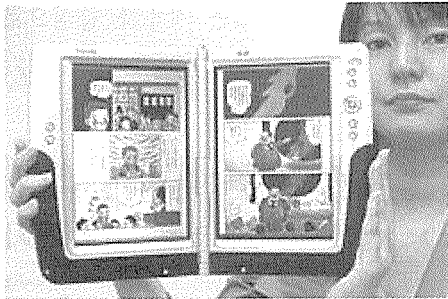




**도시바 '전자책' 시제품 공개**



일본 전자업체인 도시바가 만화까지 볼 수 있는 전자책인 'SD 북'을 개발, 시제품을 공개했다.

고해상의 양면 LCD 디스플레이를 갖춘 이 제품은 도시바가 만든 메모리카드(SD 메모리카드)에 충전가능 건전지를 내장했다. 이 회사는 언제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지, 가격이 얼마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샤프, 친환경 상품 기준 강화**

샤프가 친환경적인 성능을 지닌 상품군 '슈퍼그린프로덕트' 개발을 내년 봄부터 시작한다.

샤프는 자체적으로 정한 환경 관련 총 47개 기준 가운데 45개 항목 이상을 만족시키는 상품군을 집중 개발한다.

오는 2005년에 반도체, 전자부품 등 디바이

스 분야를 제외한 전 상품군의 내수 판매 가운데 20%를 슈퍼그린프로덕트로 대체한다. 또한 공장에서도 화학물질 절감 등 환경 문제 대처 상황을 평가하는 21개 기준을 책정, 오는 2007년에는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을 포함해 국내 10개 공장을 신기준에 맞는 '슈퍼그린팩토리'로 만든다.

샤프는 지난해 전체 상품이 47개 환경기준 중 37개 항목을 통과했다. 이 가운데 12개의 특별기준을 1개 항목 이상 만족시키는 상품이 매출의 43%를 점하고 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 100배 빠른 반도체 기술 개발**

유닉스 서버로 유명한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현재보다 데이터 전송이 100배 빠른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

선은 반도체를 에지(edge)와 에지 사이에 두어 직접 닿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보다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토록하고 IC와 칩을 연결하는 와이어·패드·솔더포인트를 필요로 하는 기존 반도체의 단점을 보완, 반도체 통신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선이 개발한 새 반도체 기술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커스텀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콘퍼런스에서 '근접성 커뮤니케이션(Proximity Communication)'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됐다.

새 기술과 관련, 선 부사장이자 연구개발로인 아이반 서더랜드는 "이전보다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가격은 더 싸며 전력 소모가 더 적다”고 강조하며 “또 반도체업계의 오랜 숙원인 병목 현상도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용화 시기에 대해 “앞으로 5년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미 새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 선이 7개의 특허를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 소니, 세계 최소·초경량 비디오카메라 출시

서양식 카드만한 크기의 비디오카메라가 개발됐다.

소니는 ‘용적 198cc, 본체중량 230g’의 핸드캠(모델명 DCR-IP1K)을 출시한다.

DCR-IP1K는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MV 방식의 기록 테이프에 대응하는 것으로 가정용 비디오카메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것이다.

핸디캠스테이션이라 불리는 전용대에 올려 휴대폰 단말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충전하며 가볍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핸드캠스테이션은 TV, PC 등과도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107만 화소의 CCD가 탑재된 이 제품의 가격은 16만엔이며 당분간 월 7000대씩 생산될 예정이다.

### 인텔, 90nm 제조공정서 첫 샘플 출하

인텔이 90나노(nm) 제조공정에 기반한 칩을 첫 샘플 출하하는 등 90nm 제조공정 도입을 가시화하고 있다.

인텔은 올 4분기 출하 예정인 데스크톱용 칩 ‘프레스콧’과 노트북용 칩 ‘도선’의 샘플 제품을 90nm 공정에서 제조해 선보였다. 인텔 측은 ‘4분기에(프레스콧과 도선의) 첫 시장 출시에 걸맞는 규모의 칩을 제한된 주문에 의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텔의 90nm 공정 칩 전략이 일정보다 다소 빨리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텔측은 ‘90nm 공정을 도입한 힐스보로의 D1C 300mm 웨이퍼 개발 랩이 이미 가동중이며 4분기에는 예정대로 엘버커키의 랩 11X가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일랜드의 레익슬립(Leixlip)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인텔은 덧붙였다.

### 인피니온, 중국 반도체 시장 10% 장악

울리히 슈마허 인피니온테크놀로지스 회장은 상하이 푸동에 중국 총괄본부 및 소프트웨어 센터를 열고 현지화 전략의 아웃라인을 완성했다.

중국총괄본부는 일종의 지주회사 개념으로 현재 SMIC 등 3개에 이르는 합작 공장과 대만의 D램 업체 난야, 원본드와의 협력도 관리하게 된다. 또 향후 통신 및 자동차용 반도체, 스마트카드 등 다양한 분야의 합작벤처와 추가 투자도 추진할 예정이다.



슈마허 회장은 “상하이에 총괄본부를 개소한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아 세계 2위의 반도체 회사로 도약하려는 의지”라며 “2007년까지 총 12억 달러를 투자, 중국 전체 반도체시장의 10%(현재 5% 수준), 메모리 시장의 40%(현재 약 15%)를 차지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피니온은 중국에서 전공정, 후공정 생산, 연구개발 라인을 모두 갖춘 유일한 회사로서 중국의 기술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피니온은 이날 내년 상반기 시안에 건설할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한 전략도 공개했다. 이 센터에서는 통신 및 자동차용 반도체를 연구개발하게 되며 약 5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배출할 계획이다. 슈마허 회장은 “중국 현지에서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R&D 센터를 통해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대거 양성할 계획이며 이렇게 될 경우 중국 본부는 종업원 수가 약 3000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 독 지멘스 · 중 화웨이 합작사 설립

독일 지멘스가 중국 휴대폰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기업과 합작법을 세우는 등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지멘스는 중국 휴대폰 업체인 화웨이테크놀

로지와 공동으로 3세대 휴대폰 기술인 TD-SCDMA(Time Division-Synchronous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에 기반한 제품의 개발·제조·마케팅 등을 담당할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합작사의 초기 자본금 규모는 약 1억달러이며 지멘스가 지분 51%, 화웨이가 49%를 분담한다.

양사는 중국시장에 초점을 둔 제품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인데 중국은 휴대폰 인구가 2억4000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무선시장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TD-SCDMA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으로 155MHz대의 할당, 현재 업체들이 현장시험(필드테스트)중에 있다.

지멘스의 한 관계자는 “TD-SCDMA 기술이 광대한 지역을 커버 할 수 있어 중국 같은 독립형(스탠드얼론) 네트워크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 AMD, PC용 64비트 칩 첫선

64비트 PC 시대를 열기 위한 도전이 시작됐다.

세계 2위 CPU업체인 AMD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PC용 첫 64비트 칩인 ‘애슬론64’를 출시했다. 애슬론64는 64비트 칩이면서도 32비트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수 있는 것



이 특징이다. AMD측은 애슬론64가 32비트 환경을 64비트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MD의 존 크랭크 수석매니저는 “AMD는 인텔이 64비트 PC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64비트 PC의 업계 표준을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업체인 인텔은 “64비트 PC 시장은 몇년 후에나 생겨날 것”이라며 PC용 64비트 칩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크랭크 매니저는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능력을 갖춘 애슬론64는 초기에 게임 시장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IBM, 퍼베이시브컴퓨팅 파트너 업체 공개

IBM이 차세대 IT전략인 퍼베이시브컴퓨팅 기술을 상용화할 파트너업체들을 공개했다.

IBM은 미국 뉴욕주 소머스에 위치한 인터스트리 솔루션 연구소에서 ‘퍼베이시브컴퓨팅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바일기기 전문업체인 림(RIM:Rim In Motion)을 비롯한 디바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와 음성인식 솔루션 분야 8개 업체와 제휴를 맺고 퍼베이시브컴퓨팅 시장 확산에 나선다.

디바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협력사는 림, 서포트소프트, 인시그니아, 엑스포인트, 블루마티니 등 5개 업체이며 음성인식 협력업체는 보이즈지니, 스캔소프트, 뉘앙스 등 3개사다.

IBM이 퍼베이시브컴퓨팅 전략과 관련해 협력업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BM은 이들 협력업체와 퍼베이시브컴퓨팅을 지원하는 각종 솔루션과 하드웨어, 시스템, 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IBM 퍼베이시브컴퓨팅부문의 크레이그 헤이만 부사장은 “향후 3년 안에 IBM이 주도하는 퍼베이시브컴퓨팅이 IT시장 전반에 널리 상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퍼베이시브컴퓨팅 기자간담회에서는 또 지난해 IBM이 자체 개발한 텔레매틱스 기술과 지능형 기기, 블루스페이스 등 퍼베이시브컴퓨팅 기술이 적용된 실제 사례가 데모로 구현돼 눈길을 끌었다.

### IBM-GE, 새 보안시스템 개발

IBM과 제너럴일렉트(GE)이 손잡고 새로운 차원의 보안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IBM은 자사의 엔터프라이즈 및 관리 소프트웨어(티볼리 등)를 GE의 보안 소프트웨어와 통합, 새로운 차원의 컴퓨터 및 보안 시스템을 개발해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보급에 나선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보안 시스템은 정보기술(IT) 톨과 배지(Badge)판독기, 침입·탐지 감시 시스템 등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배지를 단 직원은 배지판독기 접속



공간인 공장내에서 기업의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공장 밖으로 나가면 기존의 암호를 사용하더라도 기업 네트워크에 접속 할 수 없다.

IBM의 IT서비스(글로벌서비스) 부사장 레이 블레어는 “GE와 공동으로 개발한 보안 시스템은 대기업들이 회사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존보다 향상된 능력을 제공하고, 또 대신 경비는 최고 8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NTT그룹, 통신용 OS로 리눅스 채택

NTT그룹이 세계 대형 통신업체로는 처음으로 ‘리눅스’를 기본 운용체계(OS)로 채택기로 했다.

NTT의 이번 결정은 기업용 서버의 OS로 확산되고 있는 리눅스가 통신 분야에도 본격 진출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점에서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NTT는 다양한 통신서비스 및 핵심 기기를 제어하는 고성능 리눅스 OS를 오는 2006년까지 실용화하고 통신기반의 리눅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NTT는 이를 위해 우선 리눅스 개발단체인 ‘OSDL’에 가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OSDL은 IBM 등 세계 IT기업 약 30개사가 구성한 협의체로 일본기업으로는 NEC, 후지쓰, 도시바

등 5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NTT는 이 단체를 통해 리눅스 기술을 응용해 수백만명 규모의 고객 데이터 및 요금체계 등 다양한 시스템을 관리·제어할 수 있는 OS 개발에 나선다.

개발된 OS는 NTT 동서지역회사 및 장거리 통신업체 등이 통신서비스 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약 2만대의 서버에 도입될 예정이다.

NTT는 비록 세계 통신업체가 안정성이 검증된 ‘유닉스’를 기본 OS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뢰성과 기능을 높은 리눅스를 통신용 기간 소프트웨어(SW)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전역에서 대규모 시스템을 운용하는 NTT로서는 기본기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리눅스를 채택함으로써 개발·운용비용 절감과 통신서비스 요금의 인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동시에 NTT는 차세대 인터넷프로토콜(IP) 통신의 핵심장치인 라우터(통신경로 제어장치) 등에 탑재되는 OS 개발에도 착수한다. 오는 2005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인 대도시권에서의 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품질 통신서비스 제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IP통신용 라우터는 미국 시스코시스템스가 기기와 소프트 부문의 사실상 업계 표준을 장악하고 있다. NTT는 차세대 네트워크 원천기술을 단일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범용성 및 안정성을 갖춘 표준기술을 확립해나간다는 전략이다.